

혜암선사의 「용맹정진 법문」에 나타난 접화법에 대한 고찰

김호귀*

• 목 차 •

- I. 서언
- II. 『집주 혜암대종사대중법어』의 구성과 특징
- III. 혜암의 재가인을 위한 접화법
 - 1. 올바른 안목을 갖추라
 - 2. 화두공부에 大死一番하라
 - 3. 본성을 자각하여 깨침의 길로 나아가라
- IV. 결어

*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 『大覺思想』 제36집 (2021년 12월), pp.235-259.

한글요약

慧菴堂 性觀大宗師(1920~2001)는 출가자의 본분으로 一種食과 長坐不臥로 치열하게 정진하였다. 또한 산중에 주석하면서도 재가인을 위해 오랫동안 접화활동을 지속하였다. 특히 혜암사 원당암에 재가인을 위한 선원인 달마선원을 개설하고, 거기에서 재가인을 매주 둘째 주 토요일 철야정진과 안거의 마지막의 일주일 용맹정진을 직접 지도하였다.

본고에서는 혜암이 달마선원에서 재가인을 위해 설한 <용맹정진 법문>에 나타난 그 접화법의 특징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혜암의 법어집 『집주 혜암대종사대중법어집 2 공부하다 죽어라』에는 15개의 「용맹정진 법문」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올바른 안목을 갖추어야 할 것, 화두공부로 정진할 것, 본성의 자각 내지 깨침을 추구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가르침은 혜암이 계승을 곁들여서 재가인에게 강조했던 여러 가지 공안에 잘 드러나 있다. 그들 가운데 석공혜장의 활 쏘는 공안, 염관제안의 무소불 부채, 청림사건의 대사일변, 청봉전초의 생사일대사, 대주혜해의 自家寶藏, 백암의 道 등의 공안을 간추려 혜암이 지도하고 있는 가르침의 면모를 고찰한 것이다.

혜암은 출가자만이 아니라 재가인에 대해서도 따로 구별을 두지 않았다. 특히 용맹정진에 임하는 상황에서는 출가와 재가가 따로 없고 오로지 화두의 참구에 매진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혜암이 보여준 재가인을 위한 접화법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수행에는 출가 및 재가가 없이 단지 生事—大事를 해결하기 위한 자세로서 대사일변의 각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혜암, 용맹정진, 석공혜장, 염관제안, 청림사건, 청봉전초, 대주혜해, 공안, 화두, 참구

I. 서언

해암선사(1920~2001)¹⁾에 대한 연구자료는 문인 能度에 의하여 집대성된 『해암대종사친필법어집』 8권이 가장 기본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그 가운데 들어 있는 상당법어는 이미 2019년에 『집주 해암대종사상당법어집 1 공부하다 죽어라』로 출간되었다. 이어서 2020년에 출간된 『집주 해암대종사대중법어집 2 공부하다 죽어라』는 대중법어를 중심으로 엮여져 있다.

제1권의 상당법어는 주로 출가대중을 위한 법어집으로서 그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대중법어에 해당하는 제2권은 「용맹정진 법문」, 「초청강연·각종법회 법어」, 「인터뷰 및 편지」, 「영결식 법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까닭에 그 대상이 각계각층에 해당한다. 또한 재가인을 위한 대중법어가 이루어진 기간을 보아도 1988년 이후부터 수록되어 있는 까닭에 비교적 오랜 세월을 걸쳐 있다. 따라서 『집주 해암대종사대중법어집』에 수록되어 있는 대중법어는 해암대종사의 생애 가운데 20여 년에 걸친 견해로서 그 사상의 깊이와 넓이와 다양성이 풍부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집주 해암대종사대중법어집』²⁾ 가운데서 해인사 원당암에 개설된 달마선원에서 행해진 것으로 재가인을 위한 용맹정진에 나타난 내용 가운데 해암이 보여준 접화법의 특징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해암의 선사상 및 생애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여러 논문에서 비교적 많이 논의되었다.³⁾

-
- 1) 해암대종사는 전남 장성 출생. 27세 때 해인사 출가. 38세 오대산 사고암에서 일종식과 장좌불와로 정진하던 중 깨쳤다. 1981년 62세 때부터 해인사 원당암에서 재가불자 선원인 달마선원을 개설하여 안거 때마다 일주일 철야정진을 지도하고,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철야참선법회를 지도하여 500여 회에 이르는 참선법문을 설했다. 이것이 본 논문에서 고찰하는 자료임. 68세 때 원로회의 의장. 74세 때 해인총림 제6대 방장. 1999년 80세 조계종 제10대 종정. 2001년 입적.
 - 2) 김호귀 집주, 『공부하다 죽어라』 시화음, 사단법인 해암선사문화진흥회, 2019.
 - 3) 해암의 선사상과 관련한 논문으로는 2020년 9월 5~6일에 해암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제3회)에서 11편이 발표되었다. 2019년 4월 20~21일에 해인사에서 개최된 제2회 학술회의에서 7편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2014년 4월 16일에는 동국대에서 제1회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2편의 주제논문이 발표되었다. 제1회 및 제2회의 논문을 합쳐서 2020년 4월에 『해암선사의 삶과 사상』이라는 논집으로 8편의 글이 수록되어 시화음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그리고 『해암선사 선사상 연구』라는 단행본이 이복희의 저술로 2020년 2월에 바른북스에서 출간되었다. 기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1부 「용맹정진 법문」에 대하여 혜암이 재가인을 상대로 제시한 법문에 드러난 공안의 접화법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여기 『집주 혜암대중사대중법어집』에 수록된 「용맹정진 법문」은 혜암이 원당암 달마선원 철야정진에서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문인데도 출가납자에게도 적용되는 가르침이 농후하게 드러나 있어서 출가 및 재가를 위한 혜암의 접화법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혜암이 보여주고 있는 법문은 출가제자들을 상대로 펼친 용맹정진의 법문이면서 널리 재가불자를 위한 접화법의 측면으로만 아니라, 이후에 계속하여 제2부 초청강연 및 각종 법회의 법어, 그리고 제3부 인터뷰 및 편지는 일반 대중을 위한 법어로도 계승되고 있다. 따라서 본 「용맹정진 법문」이야말로 일반대중을 상대로 설한 내용인 만큼 현대세계에서 혜암이 풀어낸 교화의 모습이 가장 잘 노출되어 있다.

이제 본고에서는 내용의 주제를 세 가지로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각각의 공안을 제시하여 그 공안이 담아내고 있는 의미를 혜암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접화법의 구조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결국 혜암의 법문이면서 동시에 그 법문을 듣고 있는 재가불자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면서 화두공부에 大死一番으로 매진하는 출신활로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용맹정진 법문은 재가인을 상대로 하여 시설한 것이지만 출가납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접화법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II. 『집주 혜암대중사대중법어』의 구성과 특징

『집주 혜암대중사대중법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용맹정진 법문	초청강연·각종법회 법어	인터뷰·편지	영결식 법어
1	鐵牛는 사자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게 한 권의 경이 있으되	저 물속에 가서 달 그림자나 건져보게	경봉대중사 추도문

타 2020년 12월에는 『대각사상』 제34집에 「혜암의 선사상적 특성에 관한 연구」의 황금연 논문이 수록되었다.

2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평등은 어디에서 오는가	생불에게 理事로 불공하라	선지식을 찾아서	구산대종사 조사
3	원래 묘도의 체는 텅 비었는데	어떤 것이 진출가입니까	수도인의 자세	자운대화상 영결사
4	불교란 마음 심자한 자에	자기를 모르면 만법이 진실치 못하니	직선제 하면 망함니다	성철대종사 일주기 법어
5	여래의 중도선언	어느 곳 어느 때나 실답게 참구하라	머리를 만져보고 법의를 돌아보고 대중치를 떠나지 마라	성철대종사 이주기 법어
6	하루 종일 누굴 위해 그리 바쁘고	세존의 明星은 동쪽 하늘에 밝고	노력 없는 대가는 없습니다	성철대종사 삼주기 법어
7	명예와 이익은 문을 두른 사나운 불이거니	自心燈 自法燈을 밝히라	칭찬과 비방에 흔들림 없으면 부처	성철대종사 사리탑 제막식 법어
8	죽은 뒤에 부질없이 천고의 한을 품으면서	開口卽錯이요 動念卽乖라	하나가 바르면 자연히 일체가 바르게 되는 법	이목당 서운대종사 영결사
9	무심도 오히려 한 관문이 막혔거늘	부처님의 행이 곧 부처님이니라	자신을 속이지 말며 미루지 말고 실천하라	회광당 일각대종사 영결사
10	적멸보다 더한 즐거움 없다	활구참선	열반과 생사가 들어 아니로다	백련대선사 영결사
11	염라 늙은이의 심문을 받지 않으려거든	성지순례시 법어	오늘, 한국 불교의 얼굴	진제당 도원대종사 영결사
12	어떤 것이 心解脫입니까	부사의 해탈경계	미륵보살의 손가락을 주시오	성림당 월산대종사 영결사
13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하면	청소년의 벗이 되자	분수를 알아야 자기를 지킵니다	기양스님 영결사
14	수처작주의 삶	태평가, 중생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	꽃향기 옷에 가득하더라	금하당 광덕대선사 영결사
15	大死一番하는 곳에서	발심의 공덕	能度에게	동곡당 일타대선사 영결사
16		무엇이 대열반입니까	백 번 죽어도 이 일 밖에	진공당 탄성대선사 영결사
17		한물건	지혜와 복을 닦으면 자유를 얻는 것이니	애국열사 영가법문

18		자성을 밝히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재 법문
19		부처나 법이라는 소견이 있다면		영가를 위한 법문
20		소동파의 오도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용맹정진 법문>은 원당암 달마선원 철야정진에서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문으로 용맹정진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철야정진의 용맹정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법문의 대부분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는 까닭에 다른 법문의 제명으로 등장해 있는 용어에서도 진지한 구도자의 면모를 느껴볼 수가 있다.

용맹정진 법문의 내용은 주제가 다양하다. 매 법문마다 설해진 그 주제 15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이심전심의 도리를 알아차려야 한다.
- ② 자유와 평등은 깨침의 추구에서 가능하다.
- ③ 화두공부에 전념하라.
- ④ 화두공부에 전념하라.
- ⑤ 『단경』의 중도법문을 이해하라.
- ⑥ 자기가 본래부처이다.
- ⑦ 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⑧ 참다운 주인공을 파악하라.
- ⑨ 大無心을 자각하라.
- ⑩ 중생의 고통은 몸에서 온다.
- ⑪ 八苦를 제대로 이해하라.
- ⑫ 백장회해의 大乘頓悟法門을 알아야 한다.
- ⑬ 일상의 수행이 중요하다.
- ⑭ 화두공부에 전념하라.
- ⑮ 올바르게 공안참구하라.⁴⁾

4) 이상의 주제는 김호귀 집주, 『공부하다 죽어라』, 시화음, 사단법인 해암선사문화진흥회, 2019, 「제1부 용맹정진법문」에 의거한다.

이들 15가지 법문의 주제를 다시 유사한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정리된다. 첫째는 올바른 안목을 갖추라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법문은 ①, ②, ⑤, ⑥, ⑦, ⑩, ⑫이다.⁵⁾ 둘째는 본성의 자각 내지 깨침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법문은 ⑧, ⑨, ⑬이다.⁶⁾ 셋째는 화두공부에 매진하라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법문은 ③, ④, ⑭, ⑮이다.⁷⁾

따라서 세 가지 주제를 다시 수행의 과정에 맞추어 나열하자면 올바른 안목을 갖추고, 화두공부를 통하여 본성을 자각하는 깨침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혜암의 이와 같은 용맹정진 법문은 철야하면서 용맹정진에 대하여 수행과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부터 시작하여 항상 친근하여 궁극의 목적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책에 해당한다. 이제 이와 같은 구조로 짜여 있는 『집주 혜암대종사대중범어집』의 「용맹정진 법문」에 나타난 혜암의 재가인을 위한 접화법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III. 혜암의 재가인을 위한 접화법

1. 올바른 안목을 갖추라

혜암은 우선 철야정진에 참여한 재가불자인에게 올바른 안목의 중요성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 거기에서 일례로 언급한 공안을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혜암은 “도인들 중에도 평생 법문을 안 하신 분, 손가락만으로 가리키는 분, 부채만 들어 보이는 분, 활만 쏘려고 하는 분 등 가풍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⁸⁾라는 말로 그 공안의 일단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 가운데 ‘활만 쏘려는 분’에 대한 공안에 대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석공이 상당설법하였다. 활을 들어 화살을 시위에 걸자, 삼평이 가슴을 내밀고 ‘쏘아 보라.’고 했다. 그리고 석공은 “한 개의 활로 두 개의 화살을 쏘아온 지가 30

5) 위의 책, p.26, p.34, p.50, p.57, p.63, p.81, p.91 등이 각각 해당함.

6) 위의 책, p.69, p.77, p.96 등이 각각 해당함.

7) 위의 책, p.37, p.43, p.99, p.107 등이 각각 해당함.

8) 『집주 혜암대종사대중범어집 2 공부하다 죽어라』 시화음, 2020, pp.26-27.

년이 되었다. 그렇지만 단지 어설픈 성인만 건졌을 뿐이다.”고 말했다.⁹⁾

石鞏慧藏은 마조도일의 법사로 무주에서 선법을 펼쳤다. 三平義忠(781~872)은 석공혜장을 참문하였지만 석두희천의 법사인 大顛寶通(潮州寶通 : 732~824)의 법을 이었다. 석공은 본래 사냥꾼이었는데 사슴을 사냥하다가 마조의 암자까지 왔다. 그곳에서 기연이 계합하여 조사문중에 출가하였다. 선원에 주석하면서 승을 대할 때마다 늘상 활을 잡고 화살을 거는 시늉을 하였다. 어느 때 삼평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석공이 말했다. ‘이 화살을 보라.’ 그러자 삼평은 가슴을 내보이면서 말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군요. 사람을 살리는 화살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석공이 시위를 세 차례 튕기는 시늉을 하자 삼평이 곧 석공에게 예배를 드렸다. 이에 석공이 말했다. ‘삼십 년 동안 활 하나에 화살 두 개씩 걸어서 쏘았지만 단지 어설픈 성인만 건졌을 뿐이다.’ 그리고는 마침내 활과 화살을 꺾어버렸다. 그것은 더 이상 수단으로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石鞏弓箭의 일화는 魯祖面壁과 俱胝一指와 더불어 선림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일화이다. 마조도일의 법사인 魯祖寶雲은 어떤 승이든지 오는 것을 보면 벽을 향해 돌아앉았다. 남전은 그 소식을 듣고 ‘나는 항상 학인에게 空劫已前에 벌써 알아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알아야 한다고도 말했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한 개 아니 반개도 알아차린 사람이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귀 띠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勘弁하였다.

그리고 大梅法常 - 天龍和尚의 법사인 金華俱胝는 제자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다만 한 손가락을 치켜들 뿐이었다. 구지는 천태산에서 혼자 관음주문으로 수행을 하였다. 實際라는 비구니가 와서 샷갓을 쓰고 석장을 들고서 구지를 세 바퀴 돌고서 세 차례나 말했다. ‘바른 말을 하면 샷갓을 벗지요.’ 그러나 구지는 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못하고, 대신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 묵고 가십시오.’라고 청하였다. 실제비구니는 ‘바른말을 하면 묵고 가지요.’ 말했다. 구지는 역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자신을 한탄하고 암자를 떠나려는데 꿈에 산신이 나타나

9) 『宏智禪師廣錄』 卷3, (大正藏48, 30下), “舉石鞏上堂。乃張弓架箭。三平擊開胸當之。鞏云。一張弓兩隻箭三十年。祇射得半箇聖人”

만류하였다. 며칠 후에 천룡화상의 왕림을 받고 그로부터 一指頭를 통하여 크게 깨쳤다. 이후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다만 한 손가락을 치켜들었기 때문에 俱胝一指頭禪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석공의 활과 화살은 실제로는 사람을 살리는 화살이었다.

혜암은 바로 그 활과 화살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함을 대중에게 알려주고 있다. 누구나 모두 본래부터 각자의 본분을 구비하고 있다. 그것이 깨침이든 뛰어난 능력이든神通이건 중요치 않다. 다만 그와 같은 본분사를 체득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 대하여 활과 화살로 깨우쳐주는 것이다. 따라서 활과 화살은 사냥도구이지만 번뇌와 어리석음과 아만을 없애주는 금강과 같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석공은 하나의 활에 두 개의 화살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하나는 번뇌를 물리치는 화살이고 동시에 하나는 본분사를 살려주는 화살이다. 이처럼 일생을 두고 활과 화살의 방편을 사용했을 것은 석공의 본분이었다. 사냥으로 짐승을 살생하던 습기를 바꾸어 인간의 어리석음을 사냥하는 석공은 어쩌면 짐승 사냥보다는 인간사냥을 먼저 했는지도 모른다. 그 제스처에 속은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어설픈 성인에 불과했을 터이다. 따라서 삼평은 석공의 낚시에 제대로 걸려든 물고기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삼평은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기 때문에 가슴을 열고 활을 쏘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석공은 세 차례에 걸쳐 화살을 날리는 시늉을 하였다. 제자의 탐·진·치를 깨끗하게 쓸어버린 것이다. 삼평은 그 도리를 알아차리고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이 되었다는 것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석공은 이에 더 이상 활과 화살을 사용하지 않았다. 제자 하나 건졌으면 그만이다. 마치 달마가 9년을 기다려 혜가를 얻은 것과 같다. 이로부터 석공은 활과 화살이라는 방편을 벗어나서 삼평에게 제일의제의 입장에서 가르침을 설했다.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두고 가는 것이다. 석공이 사냥꾼의 업을 진정으로 그만두고 삭발하여 출가한 것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습기를 벗어던진 것이야말로 제자를 건지기 이전에 스스로 자신의 본분사를 드러낸 행위였다.

또한 혜암은 ‘부채만 들어 보이는 분’의 공안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염관의 무소불 부채와 관련된 공안으로서 안목의 중요성에 대하여 가르침을 내려주고 있다.

염관이 어느 날 시자에게 말했다. “내 무소뿔 부채를 가져오너라.” 시자가 말했다. “부채가 망가졌습니다.” 그러자 염관이 말했다. “부채가 망가졌으면 무소만이라도 갖다주지 않겠니.” 그러자 시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에 자복은 일원상을 그리더니 그 가운데다 소 우재[牛]를 써 넣었다.¹⁰⁾

염관은 마조도일의 제자인 염관제안이고, 자복은 양산혜적의 손제자인 資福如寶이다. 염관제안이 하루는 시자를 불러 심부름을 시켰다. 곧 자신의 소유물인 무소의 뿔로 만든 부채를 갖다달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시자는 부채가 망가졌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들은 염관은 다시 그렇다면 부채는 그대로 두고 무소만이라도 가져오라고 말한다. 시자는 어쩔 줄을 모르고 망설이고 있다. 염관은 이미 부채가 망가져 있는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자에게 갖다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시자는 부채가 망가져 있는 줄만 알았지 무소는 그대로인 줄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미 망가져서 사용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있는 스승께서 왜 갖다달라는 것인지도 물론 모르고 있다. 더구나 스승이 무소만이라도 갖다달라는 말에 대한 의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

염관은 시자가 名相에만 얽매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몸소 부채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도 시자는 여전히 부채라는 형상에만 집착하여 헤어날 수 못하고 있다. 염관은 시자에게 부채라는 실상이 무엇인가를 말해보라고 물었다. 그런데도 시자는 아직도 名相과 言說을 초월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소식에 대하여 훗날 資福如寶는 나름대로 기지를 발휘해 보인다. 곧 허공에다 크게 일원상을 그리더니 그 속에다 소 우재[牛]를 써 보여 준 것이다. 허공에다 그린 일원상은 부채라는 名相을 초월한 것을 나타내고, 일원상 속에다 써 보인 소 우재[牛]는 언설을 초월한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혜암은 허상에 속지 말 것을 제기하였다. 왜냐하면 선의 특징은 언설을 사용하면서도 그 언설을 초월하여 언설로부터 자유자재한 경지를 구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불립문자요 교외별전이다. 무소 뿔 부채는 무소의 뿔로 만든 부채일 수도 있고, 무소의 그림이 그려진 부채일 수도 있으며, 부채의 손잡이가 무소의 뿔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고, 무소가 많이 살고 있는 지방에

10) 『宏智禪師廣錄』 卷2, (大正藏48, 20下), “舉鹽官一日喚侍者。與我過犀牛扇子來。者云。扇子破也。官云。扇子既破。還我犀牛兒來。者無對。資福畫一圓相。於中書一牛字”

서 생산되는 부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다만 요지는 염관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부채이건 주장자이건 염주이건 그 언설과 형상을 넘어선 본질에서 질문의 본래의미를 알아차리고 처신하는 것이다.

이들 공안들에 드러나 있는 내용에는 혜암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이 엿보인다. 그것은 바로 석공혜장과 염관제안의 안목이 현재 눈앞에 나타나 있는 형상을 초월하여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상징적인 이치를 분명하게 알아차릴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석공이 노리고 있는 것과 염관이 의도하고 있는 것에서 본래면목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2. 화두공부에 大死一番하라

혜암은 올바른 안목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는데, 궁극적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하여 화두공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재가인의 경우일지라도 일단 화두를 참구하는 수행에 들어섰다면 그 참구하는 동안은 출가와 재가의 구별이 달리 없다. 때문에 바로 화두를 참구하는 마음의 자세 가운데 온통 화두에 집중하여 大死一番하라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혜암은 “우리의 知性이 좌절하는 곳에서, 선가의 문자로는 大死一番하는 곳에서 비로소 조사들과 만나는 날이 옵니다.”¹¹⁾라고 말한다. 대사일번의 마음자세로 참구하는 이와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는 일찍이 선종사에서도 다양한 일례로 오랫동안 언급되어 왔다. 가령 다음과 같은 일례가 이에 속한다.

한 승이 청림사건 선사에게 물었다. “저는 지름길로 다닙니다. 이에 대하여 어찌 생각하십니까.” 청림이 말했다. “대로에 죽은 뱀이 가로놓여 있으니까 그런 곳엘랑 가지 말라.” 승이 물었다. “그런 곳에 도달한 경우는 어찌되는 겁니까.” 청림이 말했다. “뿔적없이 죽는 것이지.” 승이 물었다. “그런 곳에 가지 않는 경우는 어찌되는 겁니까.” 청림이 말했다. “그곳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승이 물었다.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저는 어찌해야 하는 겁니까.” 청림이 말했다. “벗어날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승이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하는 겁니까.” 청

11) 『집주 혜암대종사대중범어집 2 공부하다 죽어라』, 2020, p.110.

림이 말했다. “풀이 무성하여 뱀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 승이 말씀 드렸다. “그러면 스님께서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청림이 손뼉을 치고 말했다. “서로 피장파장이로구나.”¹²⁾

여기에서 죽은 뱀은 분별심을 초월했다는 것에 대한 相을 가리킨다. 곧 깨쳤다는 相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깨침에 장애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은 뱀이 있는 곳은 아예 피해가는 것이 좋다고 말한 것이다. 수많은 납자들이 여기에서 상징하고 있는 죽은 뱀을 초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깨침에 대한 추구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마치 집착을 벗어나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空에 대하여 다시 집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래서 반야계통의 경전에서는 다시 空空이라는 교의가 필요했던 것이다.

동산양개의 법사로서 靑林師度(?~904)은 漢東의 靑林에 주석하였고, 이후에 강서성 동산의 제3세가 되었다. 이 문답은 동산에게서 법을 얻고 小靑林蘭若에 주석하고 있을 때 한 제자와 주고받은 문답이다. 본래면목을 주제로 하는 여기에서 중요한 소재는 죽은 뱀이다. 이미 죽어 있는 뱀은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뱀이 품고 있는 독기는 아직도 사람을 위협할 수 있다. 곧 죽어 있는 뱀은 온갖 곳에 편재하는 불법의 진리 혹은 모든 사람이 구비하고 있는 본래면목의 도리이다.

본래면목은 분별사식을 초월해 있는 생명 그 자체의 실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러한 도리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런 줄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람이 본래면목의 도리를 궁구하고 진리란 무엇이고 불법 곧 깨침이란 무엇이며 나 자신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찰나 죽은 뱀의 독기에 접촉하는 것이다. 이것은 분별적이고 의도적인 질문을 의미하는 뱀의 독기를 멀리 벗어나 흐름 이전의 흐름 그리고 분별 이전의 생명의 실상에 계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다.

한 승려가 지름길을 내세우고 청림은 죽은 뱀을 내세워서 서로 범거량을 하고 있다. 지름길은 가도 간 바가 없고, 와도 온 바가 없는 한결같은 진리의 본래면

12) 『宏智禪師廣錄』卷2, (大正藏48, 23下-24上), “舉 僧問靑林度禪師 學人徑往時如何 林云 死蛇當大路 勸子莫當頭 僧云 當頭者如何 林云 喪子命根 僧云 不當頭時如何 林云 亦無回避處 僧云 正當恁麼時如何 林云 失却也 僧云 未審向甚麼處去 林云 草深無覓處 僧云 和尚也須隄防始得 林撫掌云 一等是箇毒氣”

목을 상징한다. 죽은 뱀은 근본적인 번뇌로서 死魔이기도 하고 煩惱魔이기도 하다. 큰길은 깨침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만행이다. 지름길로 가자니 죽은 뱀을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다. 수행이 있는 곳에 마장이 있다. 그렇다고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은 천연외도이다. 도가 높을수록 마장도 높다.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인데 살아남을 수 없는 길이다. 때로는 길을 돌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달리 자신이 뱀과 똑같은 독기를 품어 대응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

바로 이와 같은 딜레마의 상황에서도 선은 분명한 길을 제시해준다. 수행을 하지 않고 살아남느냐, 깨침을 얻느냐고 죽느냐 하는 입장이다.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선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회피할 방법이 없는 그곳을 행해 그냥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판단이 용납되지 않는다.

혜암은 여기에서 지름길과 죽은 뱀을 모두 초월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길이 지름길인지 우회로인지, 뱀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는 상관없다. 지름길은 지름길대로 완전하고, 죽은 뱀은 죽은 뱀대로 완전하다. 지름길을 떠나서 죽은 뱀이 없고 죽은 뱀을 떠나서 지름길이 없다. 지름길 따로 뱀 따로가 아니다. 그대로 온전하다. 풀이 우거져 있어 지름길과 죽은 뱀은 구분되지 않는다. 보름달 아래 하얀 눈에 덮인 하얀 갈대밭에서 있는 백로와 같고, 까만 개가 칠혹 같은 밤에 숲속을 걸어가서 풀이다. 가는 곳이 어디나 지름길이고 마주치는 것이 모두 죽은 뱀이다.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지름길로 향하고 一見 및 一聞이 모두 죽은 뱀이다. 大死一番하는 선의 입장이다. 온통 그대로 내맡기는 것이다. 스승과 제자의 投機가 온전하게 의기투합된 모습이다. 때문에 청림은 피장파장이라 말한다.

이처럼 혜암은 화두공부에서 대사일번의 정신으로 참구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나아가서 혜암은 본래면목에 대한 문답을 들어 그것에 대한 화두공부에 대한 마음의 자세로서 대사일번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고 있다.

한 승이 청봉전초 선사에게 물었다. “생사일대사를 해결했으면서도 어째서 부모님의 상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청봉이 말했다. “봄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꽃은 피지 못하는 법이다. 그리고 꽃이 피었으면 마침내 꽃은 떨어지는 법이다.”¹³⁾

13) 『虛堂集』 卷4, (卍新續藏67, 354上), “舉 僧問青峰楚禪師 大事已明爲甚麼亦如喪考

청봉전초는 낙포원안의 범사로서 청봉의 개산조이다. 본 문답은 대오의 경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터득하려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청봉에게 질문한 승은 깨침을 하나의 환상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깨침을 경험하면 결코 죽지도 않고, 또 자신이 마음먹은 그대로 무엇이냐 할 수 있다는 듯이 간주한다. 때문에 깨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를 묻는다. 승은 아직 식정이 다했는지라도 아직도 法愛가 남아 있는 도리를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

여기에서 해암은 범애마저도 깡그리 초월할 것을 겨냥하여 이 문답을 들고 있다. 청봉은 제아무리 가까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自然法爾의 모습을 긍정하고 그로부터 마음이 다치지 않는 도인의 면모가 물씬 풍겨난다. 대자연에는 인간적인 모습의 기쁨이나 슬픔이 없다. 마치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듯이 자연스러울 뿐이다. 그것을 굳이 슬프다거나 기쁘다거나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러지도 않는다. 자신이 애지중지 기르던 개미가 아닌 다음에야 다른 개미 한 마리가 죽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하여 특별히 대서특필하거나 오열하거나 마음이 상하여 할 일을 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여전히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일을 잘 하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다. 깨침이란 일상의 모습과 동떨어진 환상이 아니다. 단지 평상심의 모습을 유지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곳에 드러난다는 것을 해암은 재가인을 상대로 하여 일깨워주고 있다. 청봉은 ‘봄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꽃은 피지 못하는 법이다. 그리고 꽃이 피었으면 마침내 꽃은 떨어지는 법이다.’라고 말한다. 본래 이루어지는 것은 무너지고 무너진 것은 다시 이루어진다.

대자연의 그와 같은 섭리를 이해하고 그런 도리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무심의 공부이다. 때문에 아직 무심을 터득하지 못했걸랑 반드시 무심을 깨쳐야 한다. 출가 및 재가를 따지지 말고 누구한테든지 간절하게 묻고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무심의 경지에 도달하면 다시는 일상의 반연을 휴식할 필요도 없다. 그저 온갖 번거로운 인연일랑 그런 줄 알고 저만치 내팽개쳐두면 그만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여 識情이 코딱지만큼이라도 남아 있거들랑

아직 자신의 깨침이 완전하지 못한 줄을 일념지간에 알아차려야 한다. 이리하여 미혹과 깨침을 끝끝하게 초월하지 못한다면 어찌 진정한 깨침을 터득했다고 명함이나 내밀어볼 수 있겠는가.

한 승려가 청봉전초 선사에게 물었다. ‘스님께서서는 생사일대사를 해결했으면서도 어찌서 부모님의 상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그것은 범부와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청봉이 말했다. ‘봄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꽃은 피지 못하는 법이다. 그리고 꽃이 피었으면 마침내 꽃은 떨어지는 법이다.’ 승이 생각하고 있는 깨침이란 뭐랄까 만능의 도깨비방망이처럼 여기고 있는 모양이다. 그에 대하여 청봉은 꽃이 피고 꽃이 지는 자연의 도리를 비유하여 가르침을 베풀어준다. 청봉의 그와 같은 선기는 그의 스승 낙포를 닮아 있다.

청봉전초에게 어느 날 스승이었던 낙포가 물었다. ‘원주는 어디 갔는가.’ 전초가 말했다. ‘눈을 치우러 나갔습니다.’ 낙포가 물었다. ‘눈이 얼마나 내렸던가.’ 전초가 말했다. ‘나무가 파묻힐 정도로 많이 내렸습니다.’ 낙포가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그대는 이제부터 눈으로 만들어진 동굴에서 좌선을 해야 되겠구나.’ 눈이 내린 줄 몰라서 하는 질문도 아니고, 얼마나 내렸는가 몰라서 하는 질문도 아니다. 내린 눈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하고 받아들이는가를 점검하는 문답이다. 이런 와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답은 눈을 삶의 방식과 연결시키는 것임을 내보이고 있다. 때문에 낙포는 내리는 눈을 보면서도 무심하게 외물에 집착하지 말고 눈이 내리듯이 끊임없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항상 좌선수행에 힘쓸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 문답과 관련하여 혜암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知性이 좌절하는 곳에서, 선가의 문자로는 大死一番하는 곳에서 비로소 조사들과 만나는 날이 옵니다.’라는 말은 바로 화두공부의 중요성과 그것을 참구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달마선원의 불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용맹정진의 현장에서 화두에 대하여 전심전력할 것을 말해준 것으로 내 자신의 목을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목을 취할 것인가 하는 건곤일척의 자세로 임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3. 본성을 자각하여 깨침의 길로 나아가라

혜암은 올바른 안목을 확립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화두공부에 대사일번의 자세로 임해야 비로소 본성을 자각하여 마침내 깨침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일러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혜암은 사람들 모두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반야지혜를 깨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를 위해서 혜암은 “사람은 누구나 金剛寶劍이 있어 무명의 업식을 끊고 인연 따라 마음대로 자재하니 이 도리를 알겠습니까?”¹⁴⁾라고 제기하고 이에 그 금강보검의 반야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중생견·불견·법견을 끊어버리고 大無心을 얻어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¹⁵⁾라고 말한다. 중생견과 불견과 법견은 모두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통이다.

일찍이 대혜종고는 일반인의 수행에 대한 잘잘못을 변별해준다는 내용으로서 [辨邪正說]을 지었다. 여기에서 대혜는 8항목을 시설하여 佛病과 法病과 衆生病 등에 대해 경계하였다.¹⁶⁾ 깨침을 최고의 가치로 간주함으로써 나타난 부작용의 불병(佛病), 선이 최고라는 선교차별의 모습으로 나타난 법병(法病), 출가승단만이 최고라는 승병(僧病·衆生病) 등이 그것이다. [변사정설]의 8가지 항목 가운데 둘째와 여섯째의 항목이 소위 깨침에 집착하는 병통 곧 불병에 대한 경계의 내용이었다.¹⁷⁾ 가령 둘째 항목에서는 선교방편(善巧方便)의 부재를 경계하라는 것으로 기존의 일화를 들어 언급한다.

대주혜해가 찾아오자, 마조가 물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대주가 말했다. “월주의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여기에서 뭘 하려는가.” “불법을 구하려 합니다.” “자기의 보장은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나 어찌겠다는 것인가. 여기에는 일물도 없는데 어떤 불법을 구하겠다는 것인가.”¹⁸⁾

곧 대주는 知覺에 말미암지 않고 언하에 자신의 본심을 알아차렸다. 후에 대주산에 주석하였는데, 누가 와서 물으면 항상 그 물음을 따라서 답했다. 자기의 寶藏을 열어 자기의 家財를 사용하는 것은 구슬이 쟁반 위를 굴러가듯이 거기에

14) 『집주 혜암대종사대중법어집 2 공부하다 죽어라』, 2020, p.77.

15) 상동.

16) 김호귀(2002), pp.175-196.

17) 상동.

18) 『景德傳燈錄』 卷6, (大正藏51, 246下), “初至江西參馬祖。祖問曰。從何處來。曰越州大雲寺來。祖曰。來此擬須何事。曰來求佛法。祖曰。自家寶藏不顧拋家散走作什麼我遮裏一物也無”

는 어떤 장애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섯째 항목은 ‘擬心하지 말라. 그러나 無事禪에 떨어지지 말라.’는 것이다. 擬心은 자꾸 무엇인가에 마음을 빼앗기고 부산스럽게 나대는 마음이고, 무사선은 적목의 경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최고의 경지라고 착각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출가자의 경우만이 아니라 재가인의 경우에도 깨침에 대한 열망이 대단히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法病에 대하여 대혜는 [변사정설]에서 넷째로 方便 곧 文字·言說·分別에 떨어지지 말고, 방편을 錯認하지 말라는 가르침 곧 「示妙道禪人」¹⁹⁾과 「示智通居士」²⁰⁾와 「示莫宣教潤甫」²¹⁾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승병(僧病) 곧 衆生病에 대한 가르침으로는 선수행을 하는 남자들이 超時代의인 수행에만 몰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시대의 증생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것을 거냥하여 卽時代의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출가납자 뿐만 아니라 재가인을 상대해서도 깨침을 위한 수행법을 널리 제시하였다. 이것은 대혜 [변사정설]의 승병 곧 증생병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첫째의 방편(권실)을 변별하라는 「示遵璞禪人」²²⁾ 및 다섯째의 生死心を 돌려 무자화두를 참구하라는 『書狀』²³⁾의 전반에 걸쳐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에 잘 드러나 있다. 곧 출가와 재가 혹은 출세간과 세간의 괴리에서 오는 간극을 얼마나 잘 융합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제시해 준다.

마찬가지로 혜암은 “인간은 언제나 無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이라면 이 속세에서의 邪念도 적어지고 불도 수행에 정진하는 마음도 돈독해집니다.”²⁴⁾라고 말한다. 무상에 대한 질감을 통하여 제행무상의 이치를 자각하고 찰나도 방일하지 말고 궁극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을 일러주고 있다.

한 승려가 백암에게 물었다. “도란 무엇입니까?” 백암이 말했다. “길바닥에 찍혀

19) 『大慧語錄』 卷24, 「示妙道禪人」(大正藏47, 914中-下)

20) 『大慧語錄』 卷19, (大正藏47, 892下-893中)

21) 『大慧語錄』 卷24, (大正藏47, 913上-中)

22) 『大慧語錄』 卷24, (大正藏47, 914上)

23) 『大慧語錄』 卷29, (大正藏47, 934中-下)

24) 『집주 혜암대종사대중법어집 2 공부하다 죽어라』, 2020, p.79.

있는 수레바퀴 자국이다.”²⁵⁾

백암은 신라의 백암 선사이다. 道에 대한 문답은 우주와 인생의 근본적인 바탕과 그로부터 유출되어 끊임없이 작용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표현하는가에 대하여 祖師禪의 입장은 분명하다. 조사선에서 언급하는 도는 깨침이다. 따라서 그 도를 터득하는 방법과 도의 본래모습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을 취한다. 한마디로 本來成佛이다. 이미 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드러나 있으며 작용하고 있음을 말한다. 때문에 모종의 행위를 통하여 도를 알려고 한다든가 깨치려고 한다든가 작용시키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는 인위적이고 조작적이며 분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반하여 자연적이고 평등적이며 무분별적인 모습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조사선에서 말하는 도는 청정이다. 청정은 완성을 의미한다. 어떤 번뇌에도 물들지 않고 어떤 설명에도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일찍이 大道 내지 至道에 대하여 此事·거시기[渠]·一物·一圓相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일상의 깨침이라는 뜻에서 平常心是道라 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현실생활에 밀착해 있다. 여기 평상심은 일상의 탐욕과 불만과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본래심이고 청정심을 가리킨다. 때문에 일찍이 마조도일의 가르침을 받은 거사였던 龐蘊(?~815)은 “물 길고 나무하는 것이 모두 신통과 묘용이다”²⁶⁾고 말한다.

이것은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주의 신비를 보는 것이었다. 神足通과 天眼通의 기적은 산중의 명상보다도 거리의 생활에 깃들여 있다. 물을 길어 밥을 해 먹고 나무를 베어다 불을 지피는 일상의 행위가 다름아닌 깨침의 작용이고 도의 실천이었다. 마조도일은 그의 어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리는 본래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삼스럽게 특별히 도를 닦는다거나 좌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하여 도를 닦는 것도 없고 좌선을 하는 것도 없는 이것을 진정한 如來淸淨禪이라 한다. 이제 그대들이 만약 이러한 도리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모든 업을 짓지 않게 되어 각자의 분수에 맞게 삶을 살 수 있다. 그리하여 한 벌의 옷과 한 벌의 발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앉거나 일어서

25) 『虛堂集』卷4, (卍新續藏67, 356上), “擧 僧問百巖和尚 如何是道 巖云 徒勞車馬跡”

26) 『龐居士語錄』卷中, (卍新續藏69, 139上), “神通并妙用 運水及搬柴”

거나 항상 그 모습으로 진실한 계행이 향기를 뿜어 청정한 생활을 이루어간다. 이와 같이 되면 왜 도를 깨치지 못하는가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²⁷⁾

여기에는 갖가지 경전의 내용이 생활에서 묻어나는 삶의 방식으로 인용되어 있다. 진리는 지금 새삼스럽게 배운다든가 수행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의 생활에 자명한 것으로 깃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의식함이 없이 진리의 진정한 경지를 발휘해 나아가는 것이다. 마음이 가능성으로서 미혹과 깨침을 내포한 本知라기보다 여기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평상시의 마음으로서 주체적으로 일상화되어 있다. 그것은 본래적인 자각이라든가 절대적인 깨침과 같은 전통적인 사유를 철저하게 주체화하고 행동화시킨 것이다.

이미 활성화된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평소의 마음 그대로가 진리이고 깨침일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을 모르고 우주를 모르며 부처를 모르고 인연법을 모르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깨침도 아니다. 단지 허튼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진리의 세계를 벗어남이 없이 모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작용이 진정으로 마조의 말처럼 平常心是道가 되려면 조작이 없이 있는 그대로 자유스럽게 이루어지는 진리의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진리를 떠나 현실의 장소가 있을 수 없다. 현실의 장소가 그대로 진리이다. 모두가 자기의 주체이다.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도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으며 왜 필요한 것인가. 비가 내린 뒤에 수레가 지나가자 길바닥에 새겨져 있는 수레의 바퀴자국의 의미란 비가 내리고 수레가 지나가고 그 자국이 남는 그대로이다. 수레를 위하여 비가 내린 것도 아니다. 비가 내렸기 때문에 수레가 지나간 것도 아니다. 수레가 지나간 것은 굳이 바퀴자국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니다. 그 모두가 각각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어우러져 있다. 백암은 여기에서 도를 보고 도를 가르치며 도를 실천하고 있다.

혜암은 이와 같은 평상심시도의 의미를 본래적인 깨달음의 성취로 이미 파악하고 있다.

27) 『四家語錄』 卷1, (正新續藏69, 3中), “本有今有。不假脩道坐禪。不脩不坐。卽是如來清淨禪。如今若見此理眞正。不造諸業。隨分過生。一衣一衲。坐起相隨。戒行增薰。積於淨業。但能如是。何慮不通”

平常心是道요	평상의 마음이 곧 도로써
諸法觀體眞이라	일체의 법은 본체가 진실하다
法法不相到하니	법과 법은 서로 범하지 못하니
山山水是水로다	산은 곧 산이요 물은 바로 물이니라 ²⁸⁾

그것은 화두공안의 용맹정진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조건이기도 하다. 곧 마조의 말처럼 분별이 없고 조작이 없으며 시비가 없고 장단이 없는 본래의 청정심인 것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올바른 화두공부의 성취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해준 것이다.

한편 혜암은 大無心の 경지가 되지 않으면 순수한 공부가 진척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대무심이야말로 無事閑道人の 삶의 품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혜암은 “조사선 화두는 활줄과 같아서 바르고 빠른 정통 법입니다. 모든 세간법과 언어문자, 마음 길조차 끊어 大無心을 證하는 활구법이며 격외선으로 가장 수승한 법입니다.”²⁹⁾라고 말한다. 무심은 무분별심이고 무조작심이기 때문에 천진스런 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궤적이다. 다음의 공안을 보기로 하자.

한 승려가 호국에게 물었다. “학이 枯松에 앉아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호국이 말했다. “평지의 사람에게는 조롱거리일 뿐이다.” 승려가 다시 물었다. “물방울이 바짝 얼어붙어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호국이 말했다. “햇살이 돌으면 덧없을 뿐이다.” 승이 다시 물었다. “회창법난의 경우 호법신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호국이 말했다. “산문의 신장에게는 별것도 아니었다.”³⁰⁾

호국은 동산양개 - 소산광인의 법맥을 계승하여 호국원에 주석했던 守澄淨果이다. 첫째 질문은 나뭇잎이 모두 떨어지고 고고하게 말라죽은 높은 소나무에 앉아 있는 한 마리의 학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물음이다. 둘째 질문은 추운 겨울에 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두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경우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물음이다. 셋째 질문은 당나라 무종황제 때 일어났던 불교탄압 시절에 불법

28) 『집주 혜암대중사대중법어집 2 공부하다 죽어라』, 2020, p.73.

29) 위의 책, p.46.

30) 『宏智禪師廣錄』 卷2, (大正藏48, 21上), “舉僧問護國。鶴立枯松時如何。國云。地下底一場懨懨。僧云。滴水滴凍時如何。國云。日出後一場懨懨。僧云。會昌沙汰時。護法善神。向什麼處去也。國云。三門頭兩箇一場懨懨”

을 수호하는 호법신장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 하는 물음이다.

첫째는 向上的의 경지에만 우뚝 서서 상구보리에만 관심을 두고 중생제도에는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소승적인 모습에 대하여 호국은 向下的의 보살도로써 타파한다. 둘째는 사랑과 지식의 분별을 여윈 채 조그마한 융통성도 모른 채 어떤 도그마에 빠져 있는 무리들의 모습에 대하여 호국은 깨침의 지혜로써 대광명을 내어 얼음을 녹이듯 번쇄하고 불필요한 이론을 타파한다. 셋째는 불법이 도태하는 시절이 닥치더라도 깨침의 도리는 항상 여여하여 어떤 법난에도 불구하고 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깨침의 자성을 설파하고 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호국의 세 가지 답변은 상견에 대해서는 諸行無常의 도리를 가지고 대치해주고, 단견에 대해서는 諸法實相의 도리를 가지고 대치해주며, 편견에 젖어 있는 경우에는 원용무애의 도리를 가지고 대치해주고 있다. 선어에 探竿影草라는 말이 있다. 물고기를 잡는 능수능란한 솜씨를 비유한 것이다. 곧 선지식은 어떤 제자일지라도 각각의 근기와 상황을 살펴서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교화하고 이끌어주는 자이다.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 다리는 짧으며, 백두산은 높고 동해는 깊다. 학 다리를 잘라 오리에게 붙여주어서는 안 되고, 백두산을 깎아 동해를 메우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호국이 제시하는 세 가지 답변은 제불이 항상 청정하고 평등하게 굴리고 있는 대법륜을 상징하는 말이다.

혜암은 이 문답을 제시함으로써 평상심시도 내지 대무심을 터득하지 못하면 진정한 본성을 자각하여 깨침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시해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계가의 대중이 휴일을 반납하고 선원으로 찾아와서 용맹정진에 참여하는 참다운 마음자세이고 수행정진이며 궁극적인 귀결처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혜암은 이들의 심중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에 상응하는 법어를 제시해줌으로써 대중의 각자가 터득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자각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IV. 결어

慧菴堂 性觀大宗師는 출가한 이후로 출가자의 본분으로서 일종식과 장좌불와

로 치열하게 정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중에 주석하면서도 재가인을 위하여 오랫동안 접화활동을 지속한 점은 자리이타의 보살정신을 구현한 선사로서 그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특히 해인사 원당암에 재가인을 위한 선원인 달마선원을 개설하고 거기에 모인 재가인을 매주 둘째 주 토요일 철야정진과 안거의 마지막의 일주일 용맹정진을 직접 지도했던 모습은 재가인을 위한 접화에 기울인 선사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으로 유명하다.

본고에서 고찰한 내용은 바로 해암이 달마선원에서 재가인을 위해 설했던 「용맹정진 법문」에 나타난 그 접화법의 특징이었다. 해암의 법어집 가운데 『집주해암대종사대중법어집 2 공부하다 죽어라』에는 15개의 「용맹정진 법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법문을 분석해보면 올바른 안목을 갖추어야 할 것, 화두공부로 정진할 것, 본성의 자각 내지 깨침을 추구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가르침은 해암이 계승을 결들여서 재가인에게 강조했던 여러 가지의 공안에 잘 드러나 있다. 본고에서는 해암선사가 언급한 몇 가지 공안을 선별하여 그에 대한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고찰해본 것이다. 가령 석공해장의 활 쏘는 공안, 염관제안의 무소불 부채, 청림사건의 대사일번, 청봉전초의 생사일대사, 대주해의 自家寶藏, 백암의 道 등에 대한 공안을 간추려서 해암이 지도하고 있는 가르침의 주제와 결부시켜서 그들 면모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해암은 출가자들에 대한 접화법 못지않게 재가인에 대해서도 따로 구별을 두지 않았다. 그것은 특히 용맹정진에 임하는 상황에서는 출가와 재가가 따로 없고 오로지 화두의 참구에 매진해야 할 것을 강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해암이 보여준 재가인을 위한 접화법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수행에는 출가 및 재가가 없이 단지 생사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한 자세로서 대사일번하는 각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 『大慧語錄』, 大正藏47
宏智禪師廣錄』, 大正藏48
『景德傳燈錄』, 大正藏51
『虛堂集』, 卍新續藏67
『龐居士語錄』, 卍新續藏69
『四家語錄』, 卍新續藏69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집주 혜암대중사대중범어집 2 공부하다 죽어라』, 시화음, 2020.
혜암선사문화진흥회, 『혜암선사의 삶과 사상』, 시화음, 2020.
이복희, 『혜암선사 선사상 연구』, 바른북스, 2020.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집주 혜암대중사대중범어집 1 공부하다 죽어라』, 시화음, 2019.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스승 혜암』, 김영사, 2018.
정찬주, 『공부하다 죽어라』, 열림원, 2013.
정찬주, 『가야산 정진불 I』, 랜덤하우스, 2010.
정찬주, 『가야산 정진불 II』, 랜덤하우스, 2010.
혜암선사문화진흥회, 『혜암대중사범어-I』, 김영사, 2007.
혜암선사문화진흥회, 『혜암대중사범어-II』, 김영사, 2007.
김호귀, 『선문답의 세계』, 석란, 2005.
김호귀, 「大慧의 辨邪正說 小考」, 『불교학보』 39,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Yongmaengjungjin-sermon* of Hyeam Zen-Master

Kim, Ho-gui

(Professor of Humanities Korea Project, Academy Buddhist Studies)

Hyeam zen-master was a monk who was devoted to take one meal alone a day(一種食) and to perform it only with a straight seat, never lying down(長坐不臥). He also lived in the mountains and continued his edification for a long time for secular people. He opened Dalmasonwon for the secular in Wondangam, Haeinsa temple, where he devoted himself to the secular all night on the second Saturday of each week.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ification method in *Yongmaengjungjin-sermon*, a preaching book of Hyeam zen-master. This *Yongmaengjungjin-sermon* is included in <*Jipju Haeamdaejongsabupoejip 2 Dies Studying*>. *Yongmaengjungjin-sermon* consists of 15 sermons. Summary of several topics are to have the right eye, devote yourself to studying Hwadu, to be aware of nature and to pursue enlightenment.

Such teachings are well revealed in various anecdotes that Hyeam zen-master emphasized to secular people with verse poetry. Among them, Suckgonghyejang's bow-shooting anecdote, Yeoungwanjean's no-short fan anecdote, Chunglimsagun's rebirth anecdote, Chungbongjuncho's the matter of birth and death is essential to one, and Backam's enlightenment anecdote were chosen to select Hyeam zen-master. The aspect of zen-master was examined.

Hyeam zen-master did not discriminate against secular people as well as monks. Especially, in the performance of the bravery, there is no monk and secular person, and it emphasizes that only Hwadu should work hard. This figure belongs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edification method shown by Hyeam zen-master. The practice method showed that monks and secular people should be prepared for the rebirth in a posture to solve the matter of birth and death is

essential to one.

Key words

Yongmaengjungjin-sermon, Hyeam zen-master, one meal alone a day, straight seat, never lying down, Hwadu, Suckgonghyejang, Yeoungwanjean, Chunglimsagun, Chungbongjuncho